

Infection and Chemotherapy,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화학요법학회의 공동발행 학술지



글 정희진
*Infection and
Chemotherapy* 편집위원장

『감염과 화학요법』에서 *Infection and Chemotherapy*까지

*Infection and Chemotherapy*는 2003년, 대한감염학회에서 발행하던 『감염』지와 대한화학요법학회에서 발행하던 『대한화학요법학회지』가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이 탄생한 양 학회 공동학술지입니다. 『감염』지는 1969년 창간호가 만들어진 이후 14년이 지난 1982년 제16권부터 연간 2회로 발간 횟수가 증가되었고, 1987년 제19권부터는 연간 4회로 늘었습니다. 1994년 편집체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창간호부터 사용했던 투고규정을 개정하고, ISSN에 등록함으로써 여러 문헌 검색책자에서의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997년 제29권부터는 발행주기를 연간

6회로 증가시켜 학회지 평가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1998년부터는 ‘편집인에게로의 편지’가 처음 신설되었고, 투고규정을 ‘논문제출 및 작성에 관한 지시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저자 확인사항 기록양식을 만들었습니다. 1999년부터는 저자와 색인단어 및 총목차를 게재하여 알아보기 쉽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학회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학회지 표지는 창간되던 1969년부터 1997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1971년 영문표기만 ‘*Journal of Korean Infectious Diseases*’에서 ‘*Korean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로 바뀜) 1998년 개정되었습니다. 대한화학요법학회가 학회 창립 25주년이던 1983년 5월 창간한 『대한화학요법학회지』를 1996년까지 연 2회 발행하다가 1997년부터는 연 4회 발행하던 『감염』

지와 통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7년간 『감염과 화학요법(*Infection and Chemotherapy*)』으로 발행되던 학술지는 2010년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Science Citation Index), 스코퍼스(Scopus) 등재 등 세계적인 학술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제목에서 국문명 『감염과 화학요법』을 삭제하고 영문명 *Infection and Chemotherapy*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회지 디자인 및 내용도 심혈을 기울여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지금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온라인투고시스템 (<http://submit.icjournal.org>)을 개설하면서 투고자뿐 아니라 심사위원들도 편리하게 심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편으로 주고받던 심사의 번거로움과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투고된 논문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투고시스템이 개설될 때 학회지 논문들을 책자를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웹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학회지 홈페이지(<http://www.icjournal.org>)도 함께 개설되었고, 모든 논문의 원문을 이용하는 데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회지 홈페이지를 개설함과 동시에 eISSN을 부여받아 온라인 출판물로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로는 한국과학기술지편집인협회의 KoreaMed Synapse를 통하여 각 논문마다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를 부여받아 세계 어디서나 쉽게 논문을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독자들이 논문을 자유롭게 읽고 인용할 수 있도록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저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회지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였던 우리 학술지는 아주 사소한 실수들을 해서 2007년도 등재후보지에서 탈락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새롭게 평가를 신청하여 등재후보지에 재등록되었고, 2010년 등

재후보지 1차 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2011년 2차 평가를 통과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1년도에는 Scopus에도 등재되면서 더 많은 선생님들이 *Infection and Chemotherapy*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영광스럽게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학회지 평가에서 의학계열 학술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2013년

*Infection and Chemotherapy*는 매년 6회 발행되던 국문·영문 혼용 학회지에서 2013년도부터는 발행횟수를 연 4회로 변경하고 모든 논문을 영문으로만 발행하는 영문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영문지로의 전환을 위하여 영문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투고규정, 학회지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모두 재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더 좋은 논문이 많이 투고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문지로의 전환이 *Infection and Chemotherapy*가 세계적인 학회지로 거듭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SCI, PubMed 등재까지 힘든 과정들이 있겠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좋은 학회지가 되기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양 학회의 간행위원, 임원, 심사위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학회지에 좋은 논문을 투고해주신 많은 선생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